



충남
성보농축원
예산
대표

홍성기

고객홍보처



축산 전문가 가축 인공수정사 축산업은 나의길!!

가축 인공수정사이며 건설업을 겸하여 한우를 키우고 있는 다재다능한 홍성기 대표를 만나기 위해 충남 예산을 찾았다.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한 축산전문가로 15년 동안 가축 인공수정사로 경력을 다져 성보농축원을 경영하고 있는 홍성기 대표의 일상을 둘러 보았다.

가축 인공수정사에서 집안 사정으로 건설업으로 직업을 바꿨지만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축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축사는 600평 규모로 10년 전 2년에 걸쳐 홍 대표가 손수 신축하였다. 이 축사에서 가장 많이 사육할 때에는 180두 정도를 사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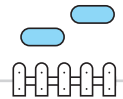
05:00 자가배합(TMR)사료

최소 금액으로 축산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홍성기 대표는 축사도 직접 짓고 지금은 한우로 전환하여 사육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자본이 적게 드는 육우로 시작을 하였다. 소 사료 또한 여기저기 손수 수거한 식재료로 TMR기계에 믹스하여 사료를 만들어 소 급여를 하고 있다. 소는 초식동물로서 섬유소, 조사료가 무척 중요하다. 제품화되어 있는 사료를 구입하면 사육하기 편하지만 나름의 자가배합사료로 미생물을 꼬박꼬박 첨가하여 비용절감을 하고 있다.



18:00 최종 목표는 축산전문기업

“농장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소들도 그런 마음을 아는지 주인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 소를 가족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되지요.” 아무리 바빠도 안락한 축사를 만들어주기 위해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소구수(소여물통)를 치우고 워터컵청소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한다. 축사를 넓히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지자체 조례의 축사거리제한으로 증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성보농축원의 축사를 넓히게 되면 정원도 예쁘게 가꾸고 혈통 좋은 송아지를 받아서 번식우를 겸하여 일관사육을 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판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전문축산기업을 운영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그는 “고품질의 한우를 키우기 위해, 더욱 건강한 소를 키우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한다. 



12:00 단기비육보다 장기비육으로

번식우와 비육우를 동시에 사육하는 일관사육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홍 대표는 비육우만 사육하고 있다. 건설업을 겸하고 있기에 제한급여를 해야 하는 번식우보다는 비육우를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장기비육을 선호한다. 비육기간을 늘리고 출하 월령을 늦추니 눈에 띄게 육질1등급 이상 출현율이 가파르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홍 대표는 “소를 장기비육할 때 육질등급을 높이는 근육내 지방(마블링)이 잘 생성되기 때문에 농가가 출하월령을 늦추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한다.